
새시대 교수법 147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교육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든지 자신감이나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는 능력을 준다." --로버트 프로스트

강의 평가 항목 1

한국에는 이제 강의평가가 상당히 정착된 듯 싶습니다. 아직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대학이 몇 있긴 합니다만 토론의 핵심은 과연 강의평가를 해야하는가 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입니다.

강의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래에 가장 흔한 예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1. 교수님은 설명을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하셨다.
2. 교수님의 학점 평가 기준은 공정하였다.
3. 강의 진도는 적절하였다.
4. 교수님께서 강의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해주셨다.

이런 항목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강의와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평가항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새 학기를 대비한다는 뜻에서 이런 평가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시험문제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출제되었다.

“아니, 이럴 수가!!”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밤샘을 하면서 수업의 핵심 이론과 주요 개념을 두루 복습했는데 시험문제는 뜻밖에 지엽말단에서 나올 때입니다. 학생들은 장시간 공부한 보람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우롱 당한 기분도 듭니다. 순간적으로 “배신감”마저 듭니다.

교수님께서 시험문제를 번두리 내용에서 선택하실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뻔히 알고 있을 핵심 내용에서 시험문제를 제출하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주변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시험이 교육과는 무관한 게임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지식과 정면대결을 준비했는데 군더더기 정보 나부랭이로부터 측면에서 기습당한 학생은 다음부터 수업 내용의 핵심에 주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교수님의 개성과 성향을 얼마나 잘 파악하여 시험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모을 것입니다.

시험은 학생들이 주요 수업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수업의 핵심 내용에서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집 코멘트>>

올해부터는 매 호마다 “새시대 교수법” 내용과 관련된 명언을 적어 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명언을 다른 구독자들과 나눠 보시고 싶으시면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명언 책자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음달 하순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구입해 보겠습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majordom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majordom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